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 -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

이 주 용[†] 김 정 규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성피해의 후유증을 살펴보았다. 성피해가 성인기 성(性)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적 영역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와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여 양적연구를 실시하고,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녹취록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크게 성피해 관련장면과 성피해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성피해 관련은 '성피해 당시의 경험'과 '성피해에 대한 인식'의 2가지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성피해 후유증은 '신체지각과 성', '정서변화', '대인관계와 성', '성적 과민성', '성장기의 성', '왜곡된 성의식', '해결해야할 과제로서의 성', '첫 성관계의 중요성', '첫 성관계 이후의 성행동'이라는 9가지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주제 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성피해, 성적영역, 양적연구, 질적연구

† 교신저자 : 이주용,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235번지 305호
E-mail : thoughi@dreamwiz.com

성(sexuality)은 신체구조, 사회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함께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각되고 경험된다.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들은 개인의 성적 발달(Sexual development)에 왜곡된 지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행동 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이나 신체지각 및 대인지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폭력은 이같은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자아(Normal self)에 방어기제를 합병하는 과정을 낳게 되며 (Herman & Schatzow, 1987), 이 때문에 성과 관련된 행위는 가장 사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공적이며, 가장 여리고 예민하면서도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Hearn & Parkin, 1987).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여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남녀간의 성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불평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며(현혜순, 2000),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Kelly(1987)는 데이트 성폭력을 주장하는 이론가 중 하나로,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압력, 강제, 힘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여성이 동의한 가운데 성관계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암묵적인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Dowdeswell(1986)은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몇 안 되는 범죄들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Brownmiller(1975)는 강간이란 흑인들에게 린치(lynch)를 가하는 것과 꼭 같이 여성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이며 강간범이 없는 세상이 여성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성피해가 여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남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성피해는 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만 느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단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성폭력은 피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어릴수록 더욱 광범위한 심리적 후유증을 나타내며(김정규, 1998; Finkelhor & Browne, 1985), 성인기 정신질환과의 관련성도 높다(Himelein & McElrath, 1996).

흔히는 자기 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순결을 잃은 상실감, 우울감, 몸서리쳐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인관계 회피, 알콜이나 약물남용, 성기능 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나타낸다(김정규, 김중술, 2000; 권희경, 장재홍, 2003; 안옥희, 2000; 박성민, 1999; Gindycz & Koss, 1989).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의 억압적인 반응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자기-비하, 자기-혐오, 정신이상, 자포자기로 성폭력의 충격에 순응하려는 재회생화 경향이 있으며(Summit, 1983), 고립감과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을 지니고(Briere & Conte, 1993),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감정을 느끼기도 한다(Finkelhor & Browne, 1985).

Mrazek & Mrazek(1981)은 아동기 성피해가

남기는 장·단기적 후유증(성적응, 대인관계, 교육, 자아개념과 행동증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지난 50년간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가장 흔히 발표된 것이 성적응이었다. 성과 관련된 후유증은 크게 양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적 억압을 보이는 측면과 혼란스럽거나 빈번한 성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자면, 대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성피해 경험은 성에 관한 혼란스러운 의식과 자위, 혼전 성관계, 동성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박성민, 1999), 성인기 피해자들은 성적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인 거부나, 성욕저하, 성협오감, 불감증 등의 성기능과 성활동의 감소를 주로 보이게 된다(Burgess & Holstrom, 1995).

성적 영역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부분 금기시 되어왔으나, 실제로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본능인 것이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욕구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적 자극이나 성행위는 성피해 여성들에게서 과거의 외상 경험을 재생시키기 때문에(Finkelhor & Browne, 1985),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서도 과거를 연상시키는 자극이 있으면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김정규, 1998). 이처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피해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 구타 혹은 이혼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최영애, 1995). 또한 성피해 이후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혼전 성관계에 더 허용적이게 되고, 거절비율이 더 낮은 등의 자기-손해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권희경, 장재룡, 2003), 대인간 혹은 이성간의 문제나 결혼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Schwartz, 1991),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성적 영역에 대해 초점화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성피해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드물고(김정규, 2000; 김민정, 1997; 박순주, 1996; 심영희, 1990), 질적 연구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또 성폭력에 관한 연구 가운데 성피해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각 후유증의 전반적인 고찰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피해 후유증 가운데 특히 성(性)에 관련된 후유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성피해 여성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성피해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질문지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성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5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적 영역에 관한 후유증이 성인기 성행동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성피해의 후유증이 어떻게 성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가를 통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성피해의 심각도에 따라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피해’와 ‘성희롱 피해’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성추행’과 ‘강간시도’, ‘강간’을 「심한 성피해」의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이는

심리적인 면에서 그 충격이 더욱 오래 가고, 성인기 성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피해의 심리적인 후유증 뿐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의 성기능 장애와 이성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개념(자아가치관)도 포함된다.

연구대상

양적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들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뒤 각 자료들은 입구를 봉할 수 있도록 조치된 개별 봉투에 넣어져 배포되었다. 설문은 우편과 직접 수거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익명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 230명에게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은 68%였다(157부).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144부가 분석의 대상이었다.

질적연구의 대상자는 양적연구의 질문지와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들 가운데, 심한 성피해 경험이 있는 5명의 여성들(24세, 29세, 30세, 33세, 3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

김정규가 제작한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1998)로 인구통계학적 질문 13항목을 포함하여 성의식, 혼전 성관계, 동성애, 현재 부부관계, 원하지 않은 성경험에 대한 질문 및 어린 시절 가족환경에 대한 질문,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성신 자기개념검사

성신 자기개념검사는 Deusinger(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1992)의 ‘문화 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86문항으로 새롭게 제작된 질문지로서 6점 Likert 척도로 기록되며, 자기존중감(19문항), 정서안정성(16문항), 대인관계능력(16문항), 문제해결능력(17문항), 및 대인신뢰감(18문항)의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존중감이 0.91, 정서안정성은 0.86, 대인관계능력은 0.90, 문제해결능력은 0.89, 대인신뢰감은 0.89, 그리고 자기개념의 총점수는 0.96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분석

양적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성피해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성의식 질문지의 “원치 않는 성경험”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피해 정도를 「비피해 집단(모든 문항에 ‘아니오’)」과 「성희롱 피해집단(음란전화, 성적농담, 지하철 신체접촉, 성기노출, 강제포옹 및 키스)」, 그리고 「심한 성피해(강제로 성적부위 애무, 성적부분 애무를 강요, 성기 삽입 시도, 강제 성관계 등)」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한 성피해 여성들의 성적 영역과 관련된 후유증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비피해」와 「성희롱 피해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심한 성피해집단」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과 심한 성피해집

단의 성영역(성에 대한 관심, 성에 대한 느낌, 성기관에 대한 느낌, 혼전 성관계 유무, 오르가즘, 관계 시 심리상태, 관계 후 느낌, 성적 기능이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통계자료에서 피검자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변인에 대한 피검자들의 무응답이나, 해당되지 않는 문항일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과 심한 성피해 집단의 자기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질적자료는 양적연구 질문지와 인터넷 사이트의 성폭력상담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심한 성피해 경험이 있는 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1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는 한 명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4회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 및 저장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특이사항을 메모하여 관찰자-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이 성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라 질문에 되도록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주의를 두었으며, 인터뷰 도중 성피해와 관련된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시 감정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또한 매주 지도교수의 슈퍼비전을 통해 녹취록의 내용들을 분석·분류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녹취록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크게 성피해 관련장면과 성피해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성피해 관련은 '성피해 당시의 경험'과 '성피해에 대한 인식'의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성피해 후

유증은 '신체지각과 성', '정서변화', '대인관계와 성', '성적 과민성', '성장기의 성', '왜곡된 성의식',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의 성', '첫 성관계의 중요성', '첫 성관계 이후의 성행동'이라는 9가지 소주제로 분류했다.

연구결과

양적 연구 결과

피해정도에 따른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대상자들의 학력별, 연령별 피해를 정도를 집단으로 나누어 <표 1>에 제시하였다.

피해정도에 따른 성적영역에서의 차이

성피해가 성인기 성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두 집단간의 성에 대한 관심, 신체 성기관에 대한 생각, 혼전 성관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성에 대한 관심)」라는 문항에 대해서 '성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은 내게 가끔 중요하다'를 긍정적으로, '별 느낌 없다,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쁘다는 느낌이 많다'를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심한 성피해집단의 경우가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성이란 말을 들을 때의 느낌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황홀한 느낌이 든다'를 긍정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 불

표 1. 피해정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포

		비피해-성희롱피해 집단(N=86)	심한 성피해 집단(N=58)	합계 (N=144)
인구 통계학적 분포	20대	68(79.1%)	40(69.0%)	108(75%)
	30대	15(17.4%)	14(24.1%)	29(20.1%)
	40대	2(2.3%)	4(6.9%)	6(4.2%)
	무응답	1(1.2%)	0(0%)	1(0.7%)
학력	초졸	0(0%)	1(1.7%)	1(0.7%)
	중졸	0(0%)	0(0%)	0(0%)
	고졸	4(4.7%)	4(6.9%)	8(5.6%)
	전문대졸	5(5.8%)	5(8.6%)	10(6.9%)
	대학생	23(26.7%)	5(8.6%)	28(19.4%)
	대졸	33(38.4%)	30(51.7%)	63(43.8%)
	대학원이상	20(23.3%)	13(22.4%)	33(22.9%)
	무응답	1(1.2%)	0(0%)	1(0.7%)

표 2. 성-관심, 성기관-느낌, 혼전성관계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 (N=86)	심한 성피해집단 (N=58)	χ^2 (N=144)
성-관심	긍정적	63(73.3%)	47(81.8%)	.281
	부정적	23(26.7%)	11(19.0%)	
성-느낌	긍정적	13(15.1%)	11(19.0%)	.543
	부정적	73(84.9%)	47(81.0%)	
성기관-느낌	긍정적	69(80.2%)	42(72.4%)	.274
	부정적	17(19.8%)	16(27.6%)	
혼전 성관계	유	22(25.6%)	37(63.8%)	.000 *
	무	64(74.4%)	21(36.2%)	

($p < .05$)

결하다는 느낌이 든다, 귀찮은 느낌이 든다, 미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즉, 비피해-성희
아무느낌이 없다'를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롱피해, 심한 성피해집단 모두 성을 부정적으
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의 성기관(성기, 가슴, 둔부)에 대한 느낌은?」라는 문항에 대해 ‘내 몸의 소중한 일부로 여긴다’를 긍정적으로, ‘내 몸에서 떼버리고 싶다, 내 신체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만지기 싫고 되도록 느낌을 안 가지려고 한다, 별 느낌이 없다’를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신체를 몸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인의 동의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가?」라는 문항 분석결과, 집단에 따른 혼전성경험의 유무는 유의미한 결과(카이값 .000, $p < .05$)를 보였다. 즉,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혼전 성경험이 더 많았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르가즘이나 성관계 도중의 심리상태, 성관계 후의 심리상태, 성기능 이상 유무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관계시 오르가즘을 느끼는가?」라는 문항에서 성관계시 오르가즘을 느끼는가?

라는 문항에 대해 ‘가끔씩, 자주 느낀다, 거의 매번 느낀다’를 긍정적으로, ‘거의 못 느낀다, 잘 못 느낀다’를 부정적으로 분류한 결과, 집단에 따른 오르가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카이값 .008, $p < .05$)를 보였다. 즉,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보다 오르가즘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관계시 심리상태가 어떠한가?」라는 문항에서 ‘편안하고 기분 좋다’를 긍정적으로, ‘실패할까 불안하다, 마지못해 한다, 아무 느낌이 없다’를 부정적으로 한 결과, 성관계시 심리상태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카이값 .004, $p < .05$)를 보여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의 경우가 성관계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성관계 후 느낌은 어떠한가?」라는 문항에서 ‘서로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행복하다’를 긍정적으로, ‘아무느낌 없다, 죄책감이 든다, 불결하다는 느낌이 든다, 귀찮다는 느낌이 든다,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느낌이 든다’를 부정적으로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카이

표 3. 두 집단간 성경험 차이 비교

		비피해-성희롱피해 집단 (N=27)	심한 성피해 집단 (N=42)	χ^2 (N=69)
오르가즘	긍정적	21(77.8%)	19(45.2%)	.008 *
	부정적	6(22.2%)	23(54.8%)	
관계시 심리	긍정적	23(88.5%)	23(54.8%)	.004 *
	부정적	3(11.5%)	19(45.2%)	
관계후 심리	긍정적	25(92.6%)	28(70.7%)	.026*
	부정적	2(7.4%)	12(29.3%)	
성기능 이상	유	3(11.1%)	25(59.5%)	.000 *
	무	24(88.9%)	17(40.5%)	

($p < .05$)

표 4. 집단간 자기개념의 차이비교

	집단구분	M	SD	t	sig.
자기개념	비피해-성희롱 집단(N=86)	361.58	45.31	3.357	0.00 *
	심한 성피해 집단(N=58)	335.77	44.56		

값 .026, $p < .05$)를 보였다. 즉,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에서 성관계 후 심리상태가 더 긍정적이었다.

넷째, 「성적기능 이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별로없다’와 ‘불감증, 성교시 통증, 무성욕 또는 성욕저하’로 나누어 성기능 이상의 유무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카이값 .000, $p < .05$)를 보였으며, 심한 성피해 집단에서의 성적기능 이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집단 간 자기개념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살펴 본 결과는 집단에 따른 자기개념의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유의확률 0.001, t 값 3.357)를 보였다. 즉,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표준편차 45.31)이 심한 성피해 집단(표준편차 44.56)에 비해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질적 연구결과

질적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5

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아동기 성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명은 성인기 데이트 상대에게서 성피해를 경험하였다. 아동기 성피해를 경험한 3명 가운데 2명은 반복적인 아동기 성피해와 데이트 성피해와 부부간격을 재경험하였으며, 데이트 성피해를 경험한 2명의 여성 역시 데이트 관계에서 성피해를 재경험하였다. <표 5>에 인터뷰 대상자들의 간략한 정보가 제시되었다.

개인별 사례

사례 1. A는 대학교 1학년 때 데이트 강간을 경험하였다. 심한 패팅이나 성기삽입까지는 상황에서도 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반복되었다. A는 남자친구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죄책감과 공범이라는 생각(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일방적인 성관계가 싫다는 감정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했다. 평소 신체지각을 잘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성폭행과는 다른

표 5. 인터뷰대상자 현황

사례	연령	피해 내용	인터뷰 방법	인터뷰 횟수
1	24	데이트 성피해	면대면	2
2	29	아동성피해(강간)	면대면	2
3	30	아동성피해(강간시도), 데이트성피해	면대면	1
4	33	아동성피해, 부부간격	인터넷	4
5	39	데이트성피해(폭력동반)	면대면	2

관계에서 오는 성피해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성경험을 성피해다라고 확신하지도 못했다.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남자들은 다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신체를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적인 사인에 민감하여 경계를 하는 한편, 성관계에 대한 혐오감과 불만족감, 성교통증을 호소하였다.

사례 2. B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 신발가게 아저씨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B는 언니 둘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 집안의 셋째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컸으나 공부도 외모도 모두 중간이고,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 신발가게 아저씨가 담임선생님 친척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신발가게 아저씨에게 인사를 열심히 하며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였고, 아저씨에게 인사성 밝다고 칭찬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칭찬(관심)을 받기 위해 가게에 자주 놀러갔다. 그곳에서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성기삽입)을 당하게 되었으나, B는 담임의 친척이라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성폭력을 당한 친구에 대해 엄마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는 적이 있어 엄마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했다. 성장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스럽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때 수녀가 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4명의 이성 경험이 있었으나 성적 접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는 애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사례 3. C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큰 방 아

저씨에게서 주기적으로 성추행을 경험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모르는 아저씨)에게 몇 번의 성추행을 경험하였다. 성장과정에서, 놀라고 우울했던 모습을 일부러 밝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중 3이던 오빠와의 성경험 이후, 중학교가 될 때까지 오빠와의 성적유혹을 즐겼다. 대학교에 들어 온 이후에야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성피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하였고, 대학 캠퍼스내에서 갑작스런 성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피해 이후 성이 삶의 이슈였으며, 이성관계에 있어 관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성관계를 해 왔다고 한다. 지속적인 이성관계는 한번이었다. 최근들어 요가를 하면서 신체를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4. D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다며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아버지는 부드럽고 자상한 분으로, 계부였다. D는 또래보다 성장이 빨라 12세에는 브래지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아빠가 기슴을 자주 만졌는데, D가 이것을 싫어하면 계부가 냉담해지는 것을 보고는 성추행 과정에 기분은 나빴지만 가만히 있게 되었다고 한다. 6개월 정도 성추행을 경험한 이후에는 2차례에 걸쳐 성기삽입을 경험하였으며, 성기삽입이 있는 도중, 계부는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해하며 ‘조금 아플꺼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곤 했다. 얼마 후 엄마가 알게 되어 계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D는 부모님의 이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죄책감을 지니게 되었고, 엄마와 D 모두 성피해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D는 성장과정에서 친척동생을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성적 괴롭힘을 하

기도 하였다. D는 성에 대한 욕구가 컸으나, 한편으로는 남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이 두 가지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방 아르바이트(폰섹스)를 하기도 하였다. 결혼 이후 남편과 성관계시 마다 성교통증을 호소하였고, D가 부부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하자 부부 공간을 당한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

사례 5. E는 대학 서클 남학생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던 중, 폭력을 동반한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성피해 경험 이후 E는 신체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돌봐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살아가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였다. 성을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이성관계를 회피해 오다가, 가해자와 정 반대의 분위기인 남편을 만나면서 성욕을 자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체 자각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출산을 경험하면서 잠시 신체자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후 다시 신체를 배제하고 살다가 상담을 계기로 신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성관계 시, 첫 성경험 이후 E의 정서상태가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며, 성관계 이후에는 친밀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은 있으나 신체적인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성피해 경험관련

본 연구에서는 성피해가 성인기 성적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며, 성적영역의 각 부분들이 시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지면 관계상 모든 사례를 신지 못했으며, 중요한 사례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성피해 순간의 경험

A와 E는 데이트 관계에서, 그리고 D는 계부에 의한 성피해를 경험하였다. 반복적인 성적 접근에서 이들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며, 애정과 피해 사이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드는 한편, 자신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책임감과 이를 합리화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거절의 두려움. 니가 사랑하면 해라! 니가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중략) 그때 개가 나를 여관으로 막 끌면서 갈꺼냐 안갈꺼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관까지 갔어요. <사례 5>

애정과 피해의 혼란. “우리 딸 가슴이 열마나 컸나~. 우리 딸이 이제 여자가 되네~” 이러면서 가슴도 만지고 몸도 막 더듬고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면 아빠가 냉담해졌어요.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색하고 이상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평소보다 더 잘해줬어요... (중략)... 공간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랬어요. ‘조금 아플꺼야~’이러면서. 정말 아파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금방 끝나~’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사례 4>

책임감, 수치감, 두려움.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나도 그 사람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러면서 죄책감과 공범이라는 의식과... <사례1 >

‘나는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되게 창피했죠. ‘내가 느닷없이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 '그 전에 애랑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었죠...(중략)...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부르거나 해야 했는데,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맞아서 얼굴도 붓고 멍이 들고 상처도 나고 그랬었는데도 말이에요. <사례 5>

울기만 했어요. 싫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는데, 상대가 선생님 친척이다 보니.. 내가 발버둥을 치다가 아저씨가 다치기라도 하면 나는 선생님께서 더 혼난다..내가 당하고 있는 생각은 못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사례 2>

합리화. 이전에는 그래도 애가 나를 좋아하니까 그랬겠지...하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킬려고 했었어요. 나를 때리면서까지 나와 섹스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게 좋아하면 섹스를 원할 수도 있고 그게 안되면 때릴 수도 있다. 강제로 성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순간 충격이 덜 했으니까..<사례 5>

성피해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들의 성피해 인식을 살펴 본 결과, 성피해를 당하는 그 순간은 '이것이 성피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데이트성폭력 경험인식. 사권지 4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다시 헤어지기까지가 그 정도(4개월 가량) 걸린 것 같았어요. 맞으면서 성폭행을 당했었는데도...처음 한달은 애가 그래도 날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애가 정말 나쁜 애인가보다... 스토키 같이 생각되고...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나중에서야 드는 거예요. <사례 5>

아동 성폭력 경험인식. 처음에는 이게 성폭력인 걸 몰랐어요. 아빠가 워낙 저를 이뻐했으니까요. 엉덩이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다가 차츰차츰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은 그냥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보여달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싫었었는데도 그뻐 정확히 몰랐죠.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 당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해 진 건, 부부 싸움 하던 날 엄마가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서야 그런 거라는 게 명확해졌었나봐요. <사례 4>

신체지각과 성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3명 모두가 신체와 관련된 오지각과 불면증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신체자각이 둔화되거나 신체자각이 안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첫 성관계나 출산과 같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자각하는 시기가 생기기도 하였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신체자각이 둔화되거나 신체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C와 E는 상담이나 요가 등을 통해 신체를 알아가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신체와 관련된 오지각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계속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걷는데.. 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그적거리면

서 걸어왔어요. 집으로 와서는 빼내려고 무진장 힘들어했어요. 뱀이 남아 있나보다.. 뱀이 들었나 보다..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씻는데도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혔나보다.. 이런 게 임신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례 2>

불면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도 오랫동안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는 똑같았어요. 쪼그만 애가 왜 이리 걱정을 많이 하냐고... 신경성이다. 이러는데... 참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부터였어요. <사례 2>

신체자각의 과정

성피해 후 신체자각 둔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지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빨리 먹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먹고 나면 어.. 너무 빨리 먹었네... 이래요. 그러고 좀 지나면 체해요. 무거운 걸 들 때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를 들어도 무겁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게 무거운 건지를 모르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몸이 아파야 알아요. 그 정도로 몸에 대해서 지각이 둔한 것 같아요. <사례 1>

일시적인 신체자각(첫 성관계, 출산).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내 신체지각으로 지속적으로는 연결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거고, 그냥.. 성이라는 것을 해봤다. 어떤 사건으로만 느꼈지, 진짜 신체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했어요... (중략)...큰 애를 낳고 나서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아이도 낳았구나.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내가 스스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도 애가 이쁜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임신이 되고,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례 5>

상담과 요가로 인한 신체자각. 내 몸에 대해서 사랑한다거나 아낀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해 본적이 없었는데, 제가 요즘 요가를 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 몸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사례 3>

상담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고, 지지도 많이 받고 나서 나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신체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 내 자존감이 올라 간 다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임신 때 잠깐 관심이 들다가... 애 낳고 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몇 년간 내 신체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사례 5>

정서변화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3명의 여성 모두 혼란스러움과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우울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고자 밝은척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성피해 경험 자체에 대해 회피를 하거나 억압하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 어려서 혹은 성숙해서 성피해를 경험했다는 오해석을 통해 역발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성피해와 유사한 자극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동일시를 경험하

고, 성피해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죄책감, 부모(엄마)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혼란.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인간에게 묘한 호기심을 주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짓밟는 경험이었거든요. 이걸 나에게 양립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호기심과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과 나의 존재를 짓밟는 그런 느낌이 동시에 온다는 이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어요. <사례 3>

우울(피해 직후).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이전에는 관심을 끌고싶어서 안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묻혀살고 싶었어요. 세상에 나라는 애는 없다...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정도로. <사례 2>

밝은 척 노력.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우울했죠. 일단은 많이 무기력하고 많이 우울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오버하고 눈에 띄는 아이가 되었어요. 굉장히 와일드하고 방방 뜨고...(중략)... 그땐 참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밝고 명랑하고 우울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례 3>

억압. 일단 성관계가 별로 없어지니까 남편과 관계도 되게 안 좋아지고,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그때는 그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성폭행이었고.. 또 폭력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결혼하고 나서는 기억이 한번도 안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피해를 당하고 거의 10년 동안 머리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거죠. 내가

그 일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야 알았어요. <사례 5>

동일시. 비슷한 사례를 접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화가 엄청나게 나오. 마치 지금 내 일인 것처럼 화를 내죠. <사례 1>

회피. 그 앞을 안 지나 다니려고, 일부로 학교 뒤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다고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억 속에서만 지워지면 다인줄 알았죠. 그런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일부러 회피할수록 더 생각난다는 거를...(중략)... 수녀가 되려고도 생각했어요. 연애를 안 해도... 결혼을 안 해도 미운 소리 안 듣고, 다들 성스럽게 생각할 테니까... <사례 2>

쾌락에 대한 죄책감. 아저씨와 오빠와의 경험은... 그 당시에 도 뭔지는 모르지만 쾌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즐겼다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무지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이성을 사귀더라도 그 부분이 항상 걸려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험을 반복했었죠. <사례 3>

대인관계와 성

성피해 이후의 대인간 변화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은 이성 외에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을 가장 먼저 얘기하였다. 불신감으로 인해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정서적 뿐 아니라 행동적으로 위축되며, 거부에 대한 불안함으로 타인(특히 이성)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불신감.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감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사람을 못 믿어요. 항상 의심을 하죠. 저 사람의 저의가 뭘까...(중략).. 불신감이 제일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를 만나는 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고..<사례 1>

대인관계 위축 및 거부공포.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중략)...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움츠러들고...(중략)... 뭘지는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불안했었어요. <사례 3>

친구 관계가 아주 좁아졌어요. 아주 진실한 관계가 아니면 필요 없다. 그쪽에서 나를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웬만큼 친한 친구 아니면 연락을 안 하게 되어 버렸어요... (중략)... 거기에 어떤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관계가 되게 협소해졌죠. <사례 5>

역발달.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구나... 그래서 나를 함부로 했구나. 정말 처음에는 슬프기만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른 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내 또래보다 내가 더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되겠다 <사례 2>

보호자(엄마)에 대한 분노. 엄마가 그렇게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도 이상하게 엄마와 멀어졌어요. 미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겉으로는 더 잘하려고 하는데, 아마 마음에 부

담이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미혼모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구요. 엄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마음이지요. <사례 4>

이해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 니가 그렇게 무르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때는 그 말들이 상처인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굉장한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사례 5>

이성에 대한 지각변화. 남자들은 다 이렇거나?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다 이런 거구나. 경멸과 약간의 혐오와 약간의 비웃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중략)... 지금 남자친구는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성적사인을 보낼 때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너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 세상 남자들은 모두 그럴 것이다! 라고. <사례 1>

소외감(다름).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생각도 했어요. 또래를 보면 어리게만 느껴지고.. 정말 세상이 밝은 줄만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애들이 참 어리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나는 세상의 빛과 어둠을 모두 겪어봤다.. 나는 애네랑 본질적으로 다르구나...이런 생각. <사례 2>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꺼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너는 나를 몰라... 그런 생각이 늘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틀리다. 이거는 공주병이나 그런 차원이랑은 다른 거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느낌. 늘 겉도는... 결코 밝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인지 더 밝은 척 살려고 했나봐요. <사례 4>

성적 과민성

피해 여성들은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민감하거나 경계를 하고 성적 사인에 대해 민감해졌다. 이러한 과민성은 직접 경험 뿐 아니라 간접 경험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접촉에 민감. 남자 자체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움찔움찔 놀라곤 했어요. 지금은 친한 남자친구랑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야 뭐하냐! 이러면서 등을 탁 치기만 해도 놀랬을 정도였어요. 긴장과 경계심과... 그래서 한때는 정말 별명이 'Don't touch me'였던 적도 있었어요. <사례 2>

경계. 개가 까맣게 생겼어요. 마르고 까맣고.. 날카롭고.. 그런 남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움츠려들고.. 이성이 앞서기 전에 진짜 신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저 놈도 그런 놈일꺼야... 길에서 그때 개랑 정말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으면서 정말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중략)...정말 무의식중에 철저하게 경계태세였었나 봐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경계하는 게 있어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좀 더 그렇고.. <사례 5>

성적 사인에 민감. 아이들이 또래 여자애에게 성희롱 같은 걸 하거나, 여자애들이 지나치게 조숙하게 굴면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애들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례 2>1

성장기의 성 (성피해 이후~(자발적)첫 성관계 이전)

성적 유희 및 성적 괴롭힘. 암튼 그 이후 쾌락에 눈을 떠가지고 오빠랑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구요, 키스도 하고 그랬어요. 오랄도 있었구요... (중략)... 처음에는 오빠가 중학교때 해달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는 제가 쾌락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오빠한테 요구를 하고.. 그랬죠. <사례 3>

동생에게 가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져보고 싶지? 이러면서 꼬드겼죠. 그러면 동생 손을 잡아끌고 만져보게도 하고 그랬어요. 6살짜리 친척동생 둘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가 이걸 기억하면 어찌나?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중략)... 명절 때는 다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보는 일은 내 몫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자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내 젖을 물리기도 했었어요. <사례 4>

성적억압 및 거부. B와 E는 성피해 이후 성적 영역에 대해서는 회피와 억압, 차단을 하는 반면, D의 경우에는 남자와의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성적욕망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4명을 사귀어 봤어요. 키스를 해 봤는데, 잠깐 좋다가 좋은 느낌을 받는 순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키스를 하다가 그만둔 적도 있었구요. 결국 다들 헤어졌어요. 내가 심하게 거부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중략)... 새로운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싫어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례 2>

대학 때는 전화 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자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화방이 생각나더라
구요. 돈도 벌면서, 뭔가 욕망을 채울 수도 있
고. 전화로 남자들 자위하는 거 도와주면서
나도 뭔가 성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렇
다고 직접 살을 맞대는 건 진짜 싫었어요. 남
자와 직접 부딪히는 게 싫었거든요. <사례
4>

내가 워낙 억압이 심해서... 성에 대해서 관
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완전히 차단했죠
뭐. 생각하기 싫다... 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
아버린 것 같아요. 다른 이성들을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성적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례 5>

왜곡된 성의식

A, B, C, D는 자신의 개념과 신체에 대해
순결상실과 신체제공이라는 왜곡된 의식을 가
지고 있었다.

순결상실. 워낙에 우리 엄마가 여자에는
조신해야 한다... 이러면서 암전 교육을 시켰
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면 그건 이미 끝
인 거예요. 나 역시 그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사례 2>

처음에는 피가 안나왔는데, 두 번째 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피가 나왔어요. 5학년짜리
가 뭘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결을
잃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종로서적에 가서 미친년처럼 책을 뒤지고 그
랬어요. <사례 4>

신체를 제공. 제 경우에는 그걸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저 사람은 그걸 원

하니까 내가 그걸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친
밀해지기 위한 첫 단계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저 자신
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자책하고. <사례
3>

이 사람을 묶어두려면 나를 쥐야 하는 거라
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
을 수 있을꺼야... 어차피 버린 몸,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사례
4>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의 성

A, B, C는 성피해 이후 성과 성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을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E역시 중
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피해 이후
자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뒤에도 정신적
인 불안이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신체적인 만족감은 여전히 과제로 남
아 있었다.

성피해 이후. 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
이 해요. 여성들의 성에 관한 책이나 영화나
그런 거를 자주 봐요...(중략)...거기서 답을 찾
고 싶거든요.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내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찾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편안하고 싶어요. 성에 대한 탐
구를 하는 거는 정신적인 편안함을 줄 것이
다...<사례 1>

무지 많이 고민하고, 성이 제 삶의 이슈였
어요. 성은 나에게 있어 항상 탐구의 대상이
었어요... (중략)...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쓴
글도 굉장히 많이 읽었구요, 성에 관련된 부

분은 열심히 찾아서 읽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남들에게 얘기 해봤자 모를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혼자서 열심히 찾아 읽고 공부를 한 거죠. <사례 3>

(자발적) 성관계 이후. 내가 섹스를 하는데 있어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는 항상 섹스가 즐거운 거예요. 성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하면 즐거운데... 당연히 즐거워야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뤄내야 할 진리인 것 같은 의무감도 들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이상적인 섹스란 두 남녀가 만나서 둘 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그런 건데... 나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섹스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없어요. 즐거움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과업인 거지. <사례 1>

성은 저에게 힘든 과제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그래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건 이후에는 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성에 관한 문제를 꼭 해결하고만 싶었어요.<사례 3>

첫 성관계의 중요성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들은 모두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B를 제외한 4명의 여성들은 이

러한 불안을 성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이를 위해서 편안하거나 신뢰로운 사람을 성관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성관계시에는 성관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성관계 이후에는 성관계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안도감이 가장 크게 지각하였다.

불안과 확인, 공포. 나한테도 성이라는 게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인간에게 주어진 큰 즐거움이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례 3>

이 남자랑 한번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을지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컸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서 뭐가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사례 4>

정말 내가 우리 남편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될까? 안될까? 불안했죠. 일종의 통과의례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과제처럼 그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거의 당위처럼 생각했죠. 꼭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사례 5>

욕구자각과 안도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닫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세상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 신체지각. 흥미. 이런 거 모두 다. 기름을 쳐야 미끌미끌 넘어갈텐데, 정말 딱딱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사례 5>

성공적인 성경험을 위해 대상을 선택. 성행위 자체와 성행위 대상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중략)...그런데 그때 상대를 성숙한 남자를 선택하지 못했었어요. <사례 3>

남편은 아빠랑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이 남자에게서 내가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섹스가 되면, 이 사람과 살아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들었구요. <사례 4>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내가 우리 남편을 고른 이유가 편안함. 부드러운 사람이다... 전에 가해자였던 개는 푹푹하고 잘 나서고 푹푹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개랑 정 반대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골랐던 것 같아요. <사례 5>

성관계 자체에 의미부여. 성관계를 위해서 몸을 빌려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성관계 자체를 위해서 몸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요구하는 남자가 되게 혐오스러웠고... 혐오스러워 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고, 또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나 자체도 되게 혐오스러웠어요. <사례 1>

안도감, 성취감, 신체자각. (자발적) 첫 성관계 이후 C, D, E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경험하였고, 성관계는 이들에게 불안감과 의무감(과제)을 해소시키고 일시적으로 신체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되게 좋았었어요. 전에는 제가 성에 대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중략)...그래서 첫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나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 했었죠. <사례 3>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행복했어요. 내가 남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구나. 내가 남자랑 할 수도 있구나. 나 임신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애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사례 4>

내가 드디어 딱지를 뺐구나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안심이 됐어요.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중략)...하고 나서는 너무 시원했어, 아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죠...(중략)...성관계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뭔가를 끝냈다. 과업을 하나 끝냈다. 성취감. 그때의 성관계의 의미는.. 첫째는 과업,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몸과 마음이 일치해서 너무 좋다는 거...(중략)... 그러면서 신체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내 몸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했거든요. 완전히 몸에 대해서는 감정 자체를 차단했던 것 같아요. <사례 5>

첫 성관계 이후의 성행동

연구대상자들은 첫 성관계 이후의 성행동에 첫 성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첫 성관계에서 관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며, 기분 상태에 따라 성관계 시 긴장되고 힘든 모습을 보이고 오르가즘을 느끼기보다는 성교 통증이나 불감증을 보였다. 성관계가 끝이 나서는 친밀감이나 충족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허무함이나 이상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다.

성관계 전

거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우선은 싫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확 돌아가 버려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저항하니까 한번은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짓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혼했죠. <사례 4>

문제가 뭐냐면 부부 생활에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정말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편을 확 밀치고, 때린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사례 5>

요구에 응함. A와 C, E는 먼저 요구를 하 기보다는 상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섹스를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손을 잡는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내가 먼저 시작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원하거나 그럴 땐 없었어요. 한번도. 그냥 상대방이 원하니까 했어요. <사례 1>

내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쪽에서 하자고 할 때는 했죠. <사례 3>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남편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년에 몇 번 정도. 매번 남편이 요구했죠.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하고... 그것도 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공유가 좋았던 것 같구요. 그래서 서로 힘들었던 것 같네요. <사례 5>

성관계 도중

자발적인 첫 성관계를 경험한 이후에도 피해 여성(A, E)들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졌던 4명(A, C, D, E) 모두 불감증을 호소하였다. 이 중 A와 E는 성교통증도 함께 호소하였다.

긴장. 매번 그랬어요. 긴장을 해 가지고 팔이 굳어있고,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계속 민감해 있는 상태죠. 하다보면 나아지는데, 그때부터는 딴 생각을 하죠. 딴 생각을 해서 긴장이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사례 1>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몸이 알고 있었나봐요. 몸이 굉장히 뻣뻣하고 긴장이 되어서 팔을 못 펴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불감증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중략)...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요즘도 그래요. 아직도 관계를 할 때 긴장이 되는 거 있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번 긴장하면서 시작하고... <사례 5>

불감증. 느낌은... 모르겠어요. 성관계는 자주 가졌는데, 오르가즘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어요...(중략)... 섹스 도중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을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섹스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왜 할까?... 좋을까?... 이런 생각. 딴 사람들은 이걸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사례 1>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나보고 섹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몸이 그런 걸. 오르가즘을 느껴보고 싶어요. <사례 4>

성교통증. 요즘도 그래요. 섹스를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도 싫고. 되게 아팠어요... 되게 많이. 신체적인 만족감은 아닌데.. 아프지 않은 날은 그 자체로 좋았어요. 아프지 않으니깐. <사례 1>

남편이랑 사귄 때 처음 했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몇 번하고 나면 괜찮아 질꺼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할 때마다 아파서,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조금 차가울 꺼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거.. 옛날에 아빠가 나한테 하던 얘기가... <사례 4>

성관계 이후

성관계 이후에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다행감)을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성관계를 가지는 4명 가운데 3명이 친밀감이나 충족감과 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안도감(다행감). 그나마 다행인 건, 성관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몇 일간은 안 할 수 있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관계가 좋아지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내 고통(성교통증)의 대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례 4>

정서적 만족(친밀감, 충족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해 지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고 나면 친밀감은 생기죠. <사례 3>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깐. 충족감이 들고, 친밀감도 생기죠. 하고 나면 좋다.. 그런 생각은 들죠... (중략)... 끝나고 나면 친밀감은 들지만, 신체적인 쾌락은 안 들어요. 짜릿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사례 5>

논 의

본 연구는 성피해 후유증에 대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심한 성피해 경험이 성인기 성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시간에 따른 후유증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통합하여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결과, 성에 대한 느낌에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 성기관에 대한 느낌으로는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신체를 몸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의 결과는, 어찌보면 상반된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성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구성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진다’라는 문항을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실제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할 수도 있으며, 성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홀한 느낌이 든다’는 문항 역시 부적절하다.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긍정적인 것에 포함시켰으나, 문항 자체가 자칫 ‘밝힘증’과 관련된 부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항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에 대한 느낌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결론짓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과 심한 성피해집단 모두 성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심한 성피해집단의 경우가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질적연구 결과

와 통합하여 생각해 보면,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성에 대한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혼전 성관계 비율이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 여성들은 성적 영역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접 확인(성관계)을 하는 메커니즘이 성피해 여성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심한 성피해 집단이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보다 오르가즘을 덜 느끼고 성관계 도중 성교통증이나 불감증 등의 성기능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심리상태도 불안하였으나,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비피해-성희롱 피해집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심한 성피해집단내 비율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정서가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피해 여성들이 성관계 이후 안정감이나 상대와의 친밀감, 충족감 등을 보고한 것과 같이, 성관계 이후의 긍정적인 정서는 이성간의 애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적연구에서는, 근친간의 성폭력은 물론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성피해 경험에 대해 ‘애정’과 ‘피해’, 즉 성관계와 성폭력에 대한 경계에 모호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혼란감은 국내 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고(권희경, 장재홍, 2003; 김정규, 채규만, 1997; 현혜순, 1998), 타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McDonald, Lambie & Simmons, 1995). 이 경우, 피해자들은 당시의 상황이 피해상황임을 명확

히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위축된 정서반응을 보였으며, 수치심과 성적 가치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역할에 동조했다는 죄책감 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정서경험은 피해자나 피해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피해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Finkelhor & Browne, 1985), Courtois (1988)는 ‘분노의 내면화과정’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즉, 성폭력을 당한 직후 초기 불안이나 분노가 잘 처리되지 못한 경우, 자기혐오와 우울로 내면화되면서 자기비난적 사고패턴이 만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 여성들은 성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한 경우조차, ‘피해자 유발’이라는 통념에 의해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렸으며, 특히 신체적 쾌감을 느끼고 반응을 한 경우(사례 3), 죄책감은 보다 크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성피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될 일’로 여기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성피해 경험,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고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인기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욕의 저하와 관련한 성기능과 성활동의 감소를 주로 보였으며, 아동기 성피해의 한 사례(사례 2)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성적인 자극이나 접근을 회피하고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른 두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유희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Glasser와 Frosch(1988)은 ‘미성숙한 성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이나 놀이에서 잦은 성적인 몰두나 표현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아동기 성폭력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Meston, Heiman &

Trapnell, 1999)에서도 성장기에 연령보다 조숙한 성행동을 하거나, 성충동, 성적환상, 성적 개방성, 성경험 및 자위행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성피해를 경험한 3명 모두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오지각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체는 물론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성피해를 경험한 것은 '또래에 비해 자신이 너무 성숙해서 혹은 너무 어려서 경험하게 된 일'이라 지각하며 역발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아동기 성피해를 경험한 3명의 여성 모두 실제 혼란스럽고 우울한 정서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해 여성들 모두는 성과 관련된 자극에 예민한 경향을 보였는데,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주어지면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경험되면서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거나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피해 경험은 진단적으로 후외상성 스트레스장애(PTSD)로 분류될 수 있으며(김정규, 1998), Van der Kolk(1989)는 성피해 여성들이 외상을 회상케하는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항상 신경과민 상태에서 지나친 경계와 각성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성적 자극에만 민감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민감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아동기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신체 어딘가에서 성피해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왜곡된 지각과 대인관계 불신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피해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 짓고, 자신과 타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느끼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자기 및 대인지각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는데, 특히 아동기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일수록 주변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몇 개의 선행연구(Hunter, 1995; Horowitz, 1986)에서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깊이 사귀는 것을 위협하다고 여기며, 그 대상은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여성들은 대인관계, 특히 이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해서 다양한 왜곡된 지각과 사고를 보고하였다. 흔히 흑백사고나 과잉일반화, 부정적 사고, 감정적 추리와 같은 지각방식을 사용하여 이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손상된'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Sgroi(1982)는 손상된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이라 부르며, 성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무기치할 뿐 아니라 존중받을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Wyatt(1992)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강하게 느꼈던 무력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협 상황을 지각하는데 취약한 피해자의 인지구조와 낮은 자존감, 자신의 개인적 경계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이는 심한 성피해 여성의 자기개념이 비피해-성희롱 피해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chwartz(1991)는 성피해 경험

이 장기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어 이성간의 문제나 결혼생활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들은 성피해를 경험한 이후,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와 같은 불안감을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며, 성에 대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을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성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기기도 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의 문화와 성피해라는 일종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성행위 장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인 성행위에 직면하거나 성적인 자극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5명 가운데 한 명은 성적 자극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머지 4명의 여성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성관계를 통해 임신 및 성관계에 대한 불안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성피해 여성들이 혼전 성관계 비율이 비피해 여성들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들(박성민, 1999; Meston, Heiman & Trapnell, 1999; Glasser & Frosch, 1988)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이를 본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성에 대한 불안감이 성피해 여성들의 혼전 성경험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성피해 여성들은 문란한 성행위에 집착하거나 성적 회피를 보인다’는 극단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결론보다, 성피해 여성들의 내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고가 성피해 여성들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첫 성관계의 대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선택된 남성들은 편안하거나 신뢰로운 사람, 혹은 가해자와는 반대의 특징을 지닌 사람이었다. 첫 성관계를 갖는 당시 피해 여성들은 애정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보다는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첫 성관계를 가진 직후에는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첫 성관계의 경험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안감과 의무감(과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의 성취경험은 안도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여성들에게 있어 첫 성관계는 안도감,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신체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첫 성관계 이후에는 대개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성관계 이후, 즉 성적 불안감을 해소한 이후에는 성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은 줄었다. 성적 욕구나 성관계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관계 시 긴장과 성교시 통증, 무감증, 불감증을 경험하였다.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성적흥미 및 신체적 쾌락의 저하는 대인관계 경계와 불신과 마찬가지로 이성관계나 부부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한다. 또한 성피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 혹은 이성관계 갈등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원한 내담자들에게 남녀 모두의 성피해 여부와 성적 영역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성적 쾌락과 관련해서 만족감은 덜 느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는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안정감, 친밀감 및 정서적인 충족감을 경험하는 등 정서적인 욕구는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양적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관계 도중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보였으나, 성관계 후의 심리적 상태는 긍정적인 상태가 훨씬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신체자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Horowitz, 1986; Hunter, 1995), 첫 성관계나 출산 등과 같은 중요한 사건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자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시적인 신체자각이 있는 다시 신체에 대한 자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꾸준한 상담이나 요가와 같은 정신-활동적 수행을 통해 신체와 정서자각이 가능해졌다는 2명의 연구 대상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치료적 접근은 성적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성피해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인터뷰 사례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성신자기개념검사는 1998년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는 자아가치관 검사(2002년판)로 개정판이 나왔다. 보다 정확한 자아가치관 검사를 위해서는 개정된 자아가치관 검사를 활용한 설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셋째, 성생활 및 성활동 질문지의 문항 가운데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모호한 문항이 있었다. 문항 각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질문지는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과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지나치게 성적인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터뷰에 응해준 대상자들을 정서적으로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보다 민감한 주제들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예리한 통찰력을 갖춘 숙련된 연구자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간의 중요한 한 부분인 성(性)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합적인 형태의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에 나와 있는 경험적 연구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성피해를 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특히 성피해 후유증 가운데 인간 행동의 중요한 영역인 성(性)을 주제로 몇 가지 소 주제들을 분류하였으며, 각 주제들 내에서의 후유증의 진행 및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연구를 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 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여성심리학회지: 여성, 8권 1호.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권 1호.
-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

- 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권 4호.
- 김정규, 채규만 (1997). 성폭력 피해의 평가와 심리상담. 성폭력 피해 세미나 자료집.
- 박성민 (1999). 성피해의 현황 및 실태와 피해자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주 (1996).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영미 (2002). 성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미혼모 사례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24집.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옥희 (2000). 친족 성폭력 피해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애 (1995). 우리사회의 성폭력 실태와 성 문화; 불평등 사회와 왜곡된 성의 실상과 대책, 여성학연구, 제 6권.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자료집.
- 현혜순 (2000).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학생생활연구, 제 14호
- Briere, J. & Conte, J. (1993). Self reported amnesia for abuse in adults molested as childre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66-77.
- Brownmiller, S.(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 Burgess, A. W. & Holstrom, L. L. (1995). *Rape. Crisis and Recovery*. Rovert J. Brady Co.
- Courtois, C. A. (1988). *Healing the Incest Wound: Adult Survivors in Therapy*. New York. Newton.
- Finkelhor, D. & Browne, A. (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 Glasser, D. & Frosch, S. (1988). *Child sexual Abuse*. Mazmillian Education. London.
- Gindycz, C. A. & Koss. M.Z.P.(1989). The impact of adolescent sexual victimization; Standardized measures of anxiety, depression and behavioral deviancy. *Violence & Victims*, 4(2). 139-149.
- Herman, J. L. & Schatzow, E. (1987). Recovery and verification of memories of childhood sexual trauma. *Psychoanalytic Psychology*. 4(1).
- Himelein, M. & McElrath, A. V. (1996). Resilient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Cognitive coping and illusion. *Child abuse & Neglect*, 20(8).
- Horowitz, M.J. (1986). Stress response syndromes: A review of post traumatic and adjustment disorder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7.
- Hunter, M. (1995). *Adult Survivors of Sexual Abuse*. CA, Sage.
-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Polity Press; Cambridge
- McDonald, K., Lambie, I., & Simmons, L. (1995). *Counseling for Sexual abus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Meston, Heiman & Trapnell. (1999).
- Mrazek, D. & Mrazek, P. (1981). Child Maltreatment. IN ;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nd ed., edited by Rutter, M., &

- Hersov, L., London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 Sauzier, M (1989).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y Clinics of North America*, 12(2).
- Schwartz, SK. (1991). Sexual assault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Summit, R. C. (1983). The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Child Abuse & Neglect*.
- Van der Kolk, B. (1993). Dissociative disorders in psychiatric in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7).
- Watt. G. E. (1992). The sexual abuse of Afroamerican and white american women in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9.
- 1 차원고접수 : 2006. 10. 18.
심사통과접수 : 2006. 12. 27.
최종원고접수 : 2006. 12. 28.

The research regar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Sexual abuse - Focusing on the sexual field -

Joo-yong, Lee

Jung-kyu, Kim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find that how the sexual abuse has affected adulthood sexual behavior and how change the aspects in process of time,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egrate interpretation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The quantitative study was administered to 20~50 aged 144 women, and were used 'The sexual concept and sexual behavior questionnaire' and 'Self esteem scale'. The qualitative study was analyzed recording files of depth interview done to 5 women experienced several sexual abuse. I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victims of sexual abuse had little awareness of the situation was sexual abuse, and they become to know that the situations they suffered were. Then, They interested and stydied in sex, and they conforms of their worries as sexual actions. The results increased percentage of sexual actions in sexual abused women before marriage. Victims that experienced several sexual abuse, have negative feelings of their sexual body-part, low insensibility of orgasm, more complain of sexual dysfunction, and it related to decreasing of sensibility about body awareness. Although women victims have low self-esteem, and they positioned and experienced in adverse condition repeatedly, they experiences stability, intimacy and sufficiency after sexual actions with love.

Key words : sexual abuse, sexual field, quantitative study, qualitative study